

일본 교육여행 현황 및 방한교육여행 전망

'24. 3. 26(화) / 도쿄지사

□ 조사배경 및 목적

- 일본 교육여행 시장은 코로나19가 계속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나, 2022년 국내 교육여행을 중심으로 크게 회복되었으며 순차적으로 해외 교육여행의 수요 회복 기대도 긍정적임. 이에, 본 조사 결과를 통해 일본의 해외 교육여행 현황을 파악하고 향후 방한교육여행의 전망을 살펴보고 방한 교육여행 단체 유치를 위한 참고자료로서 활용하고자 함
- 본 조사는 2023년 12월 발표된 2022년 일본 교육여행에 대한 통계 자료인 교육여행연보 「데이터북2023」을 바탕으로 일본의 국내외 교육여행 동향을 파악, 향후 방한 교육여행 단체 유치를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그 목적을 둠

<교육여행연보 「데이터북2023」>

발행 : 2023년 12월

발행처 : 일본수학여행협회

조사대상 : 일본 전국 중학교, 고등학교

조사방법 : 조사대상 중 중·고등학교 각 3,200개교의 표본을 선정하여 국내외 수학여행 관련
양케이트 실시

□ 2022년 일본 교육여행 계획 및 실행 여부

- 교육여행은 실시 1~2년 전에 검토하게 되는데, 코로나19의 영향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중·고등학교에서 2022년도 교육여행에 대한 초기 실시계획을 수립, 실시한 것으로 나타남
 - 수학여행 실시율 : 98.7%(국내, 해외 모두 포함)
 - 해외 수학여행 실시율 : 국공립 0%, 사립 1.7%
 - * 2018년 해외 수학여행 실시율 : 국공립 0.2%, 사립 26.8%

- 해외 교육여행을 계획하는 비율이 저조하였는데, 이는 방문국가의 입국 제한, 엔저, 국제선 정기편의 감소, 현지 코로나 양성 반응 시 대응의 어려움, 백신접종 절차 및 비용 등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임

- 해외 교육여행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사립 중학교의 경우 전년도 26.7%에서 20.2%로 감소하였으며, 고등학교의 경우 해외 교육여행의 비중이 전년도 10.9%에서 9.1%로 감소하였음

□ 일본 중학교의 국내 교육여행 실태

- 전국 국/공/사립 중학교 10,012교 중 3,200개교를 표본 추출하여, 앙케이트 조사를 진행하였으며, 국내수학여행 실시율은 전체 98.4%, 전년도조사 결과인 78.3%에서 20.1%p 증가하여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된 것을 알 수 있음 (2018년 실시율 : 94.1%)

<국내수학여행 실시율 추이> (단위 : %)

구분	국공립	사립	전체
2020년	54.5	20.8	47.8
2021년	82.5	60.7	78.3
2022년	100.0	90.2	98.4

- 실시시기는 4월~7월(51.5%), 9월(12.1%)에 집중되어 있음
 - 국공립은 5월, 6월, 9월에, 사립은 10월, 11월에 집중
- 실시학년은 국공립의 83.4%, 사립의 81.4%가 3학년 때 실시하는 것으로 나타남
 - 공립은 여행기간, 여행경비, 실시학년, 참가율, 여행지, 인솔자 수를 정하고 있는 도도부현·정령지정도시 「수학여행실시기준」을 준수하여 마지막 학년에 실시하는 경우가 많음
- 평균 여행일수는 3.1일, 학생 1명당 여행비용은 69,881엔
 - 교통비 28,108엔, 숙박비 23,285엔, 체험활동비 5,925엔 등
 - 학생 1명당 여행비용의 최고금액 20만엔, 최저금액 2만엔

<연도별 여행비용 추이>

(단위:엔)

구분	총비용	교통비	숙박비	체험활동비	기타
2018년	64,450	27,094	21,559	5,091	11,730
2019년	64,683	28,306	21,472	3,448	9,926
2020년	41,617	16,339	14,538	5,203	8,173
2021년	54,331	19,082	18,041	5,375	9,884
2022년	69,881	28,108	23,285	5,925	11,598

□ 일본 고등학교의 국내 교육여행 실태

- 전국 국/공/사립 고등학교 4,824교 중 3,200개교를 표본 추출하여, 앙케이트 조사를 진행하였으며, 국내 수학여행 실시율은 전체 98.4%로, 중학교와 마찬가지로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된 것을 알 수 있음 (2018년 실시율 : 97.7%)
- 실시시기는 예년처럼 2학기인 10~12월에 전체 실시건의 65.2%가 집중되어 있음
 - 코로나19 영향이 없었던 2018년도의 실시 시기와 유사해짐
- 실시학년은 전체의 93.4%가 2학년 때 실시하는 것으로 나타남
 - 마찬가지로 2018년과 유사한 결과가 나타남(2018년 : 95.7%)
 - 2018년에 비해 3학년 실시가 다소 높아졌으나, 이는 전년도 2학년 때 실시하지 못하고 3학년으로 연기된 영향으로 보임
- 평균 여행일수는 4.0일, 학생 1명당 여행비용은 105,333엔
 - 학생 1명당 여행비용 : 국공립(94,533엔), 사립(124,095엔)

<연도별 여행비용 추이>

(단위:엔)

구분	총비용	교통비	숙박비	체험활동비	기타
2018년	102,683	50,339	30,780	8,455	12,714
2019년	102,737	50,833	30,412	7,405	13,271
2020년	75,962	34,758	28,023	6,168	11,428
2021년	90,125	41,907	31,470	8,437	12,886
2022년	105,333	48,299	33,460	7,679	14,705

□ 일본 중·고등학교 해외 교육여행 실태

- 전국 국/공/사립에서 중학교, 고등학교 각 3,200개교 표본 추출하여, 앙케이트 조사를 진행하였으며, 코로나19 영향을 받기 전인 2019년도 대비 해외교육여행은 약 1/8로 감소함

연도	해외 교육여행 (전체)		해외 수학여행	
	건수	인원(명)	건수	인원(명)
2014년	742	50,742	299	39,555
2015년	806	56,276	314	44,033
2016년	788	53,257	293	40,880
2017년	854	53,541	294	40,460
2018년	929	62,373	365	48,351
2019년	<u>880</u>	63,998	373	52,647
2020년	-	-	-	-
2021년	-	-	-	-
2022년	<u>111</u>	3,363	19	1,218

* 2020,2021년은 조사 없음

- 실시시기는 10월~12월 기간이 많았고, 8월 이전까지는 전무하였음.
특히, 19개교 중 9개교가 마지막 학기인 3월에 실시하였음
 - 코로나19 관련 각종 제약의 완화를 기다리며 학교에서 실시 시기를 늦춘 것으로 파악할 수 있음
- 방문국가로는 호주(1위), 싱가포르(2위), 미국본토(3위) 순으로 집계

<2022년 해외수학여행 방문국가 순위>

순위	국가명(실시건)	순위	국가명(실시건)
<u>1</u>	<u>호주(7)</u>	5	하와이(1)
2	싱가포르(3)	5	캐나다(1)
2	미국(3)	5	태국(1)
4	뉴질랜드(2)	5	인도네시아(1)

- 코로나19 이전까지 방문국가로서 최상위 순위였던 대만이 본 조사 결과에서는 순위에 들지 못했는데, 이는 해외 수학여행이 어려웠던

2022년 기간에 실제 수학여행을 실시했던 학교 대부분이 사립학교였다는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보임

참고 <2019년 해외수학여행 방문국가·지역 순위>

순위	국가·지역명	실시건
1	대만	104
2	싱가포르	56
3	말레이시아	43
4	호주	39
5	유럽	31
6	하와이	27
7	미국(본토)	22
8	캐나다	21
9	미크로네시아	20
10	뉴질랜드	11
11	아시아	10
12	베트남	9
13	영국	7
14	한국	5
15	중국(홍콩, 마카오 포함)	4

○ 해외교육여행 목적에 따른 평균 숙박일수와 평균 여행비용

- 해외수학여행의 평균 숙박일수는 10.6박, 평균 여행비용은 409,142엔으로 2019년 대비 약 2배 상승하였는데, 이는 항공편 및 좌석수의 회복이 더더 교통수단 비용이 증가하고, 코로나19 대책을 위한 각종 비용이 발생한 점, 그리고 코로나19 조치 완화가 빠르게 이루어진 구미주 지역 중심의 해외교육여행 회복이 원인인 것으로 보임

여행목적	2022년		2019년(비교)	
	평균숙박수	평균비용	평균숙박수	평균비용
해외수학여행	10.6	409,142	4.9	213,827
어학연수	12.8	491,562	15.6	426,772
자매교교류	12.8	348,363	13.5	285,111
기타 연수	8.7	370,889	6.0	237,039
유학	106.8	1,544,645	139.0	1,643,451
대외시합	-	-	9.5	247,500
기타	7.0	489,000	8.4	240,435

○ 과거 일본 해외여행 목적지별 실시 통계

2000년	2011년	2013년	2015년	2017년	2019년
중국 (201개교 36,607명)	미국 (220개교 26,576명)	미국 (260개교 35,168명)	미국 (281개교 38,453명)	타이완 (332개교 53,603명)	타이완 (293개교 46,895명)
한국 (231개교 35,364명)	한국 (167개교 20,833명)	싱가포르 (167개교 23,571명)	타이완 (232개교 35,775명)	미국 (208개교 28,355명)	미국 (194개교 28,285명)
호주 (158개교 26,114명)	호주 (148개교 21,557명)	타이완 (140개교 20,829명)	싱가포르 (167개교 23,034명)	싱가포르 (192개교 27,015명)	싱가포르 (173개교 23,571명)
합계 1,196개교 182,986명	합계 1,207개교 151,419명	합계 1,300개교 168,668명	합계 1,279개교 164,929명	합계 1,337개교 179,910명	합계 1,257개교 163,394명
-	-	한국 (112개교 12,037명)	한국 (31개교 2,793명)	한국 (22개교 1,537명)	한국 (24개교 1,774명)

* 출처 : 일본 문부과학성(고등학교 등의 국제교류 등 현황 조사)

- 일본에서는 매년 1천개교, 16만명 이상의 학생들이 해외 수학여행을 실시해왔으며, '19년 해외 수학여행 목적지는 아시아(59.6%), 미국·캐나다(20.3%)의 순으로 대만이 약 28.7%로 1위를 차지함
- 일본의 방한 수학여행은 '00년 35,364명으로 최대를 기록한 이후, 한일관계 등의 영향으로 '19년 1천명 대까지 꾸준히 감소

○ 일본 해외 수학여행 형태의 변화

- 일본 해외 수학여행의 3가지 키워드 ①다방면·소인원, ②학습 극대화, ③관계자 네트워크 구축 * 출처 : 일본 관광청 '해외교육여행 추진'
- 기존의 학년 전체가 참여하는 대규모 형태의 수학여행에서 학생 개개인 니즈에 맞춘 소규모 형태의 수학여행으로 진행
 - * '23년 방한 수학여행 단체 중 50명 이하 단체 비중 약 73.6%
- SDGs* 관련 체험 여부 또한 수학여행 목적지 선택 시 중요하게 고려됨
 - * UN에서 제정한 지속가능한 개발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로 17개 목표를 바탕으로 인류, 환경, 경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국제사회의 최대목표
- 일본 고등학교 수학여행에서 중요하게 고려되는 내용은 역사학습(36%), 자연 및 환경학습(20%), 평화학습(12%) 순으로 나타남
- 일본 고등학교의 해외 수학여행 비용 기준은 1인당 10만엔 내외로 책정
 - * 일본수학여행협회「2023년도 수학여행실시기준표

□ 경쟁국(대만) 방면 교육여행 현황

- 대만은 '04년 1,108명으로 14위에 그쳤지만, '19년 46,895명을 기록하며 일본 해외 수학여행 시장 전체 1위를 차지함
- 일본 해외여행 시장의 트렌드를 반영하여 역사, 자연, 문화, 관광 자원 및 SDGs 관련 프로그램을 집중적으로 홍보하고 있음
- 양국 학교 간의 교류 또한, 단순 교류회뿐만 아니라 양국 학생들과 함께하는 B&S 프로그램 등 다양화되어 있음
 - * Brother & Sister Program : 현지 학생들과 함께 교류하며 도시 체험 등을 진행하는 프로그램
- 이와 함께 일본어 및 영어가 가능한 현지 언어적 특성 및 일본과 관계가 많은 역사적 특성, 지리적 특성 등으로 일본 해외 수학여행 시장에서 두각을 보이고 있음

□ 해외수학여행지 결정 과정

- 결정시기 : 매년 1~3월
 - 2년전에 수학여행지를 결정하므로 신입생이 입학하는 시점인 4월에는 이미 수학여행지가 결정되어 있음
 - * 약 2년 후인 2학년 가을(10~11월)에 수학여행 실시
 - * 공립학교에 해당하며 사립학교는 각 학교 일정에 맞춰 실시
- 결정 절차
 - 학교가 이미 수학여행 국가를 결정한 경우, 여행사 몇군데를 통해 일정 및 견적을 받아 선택
 - 학교가 수학여행 국가를 결정하지 않은 경우, 몇 개의 여행사로부터 국가 및 해당일정과 견적을 받아 그 중에서 선택함

□ 시사점 및 결론

○ 다목적 소인원 구성의 해외 교육여행에 의한 세분화된 타깃별 접근 필요

- 기존 학년 단위로의 대규모 형태 수학여행에서 어학연수, 대외시합 참가 등 고유 목적의 소규모 단체 해외 교육여행의 추세가 나타남
- 1인당 여행비용은 2019년 예산 기준 약 20만엔 내외로 고등학교 기준 금액인 10만엔의 약 2배로, 비용에 따른 수요 변동은 많지 않을 것으로 추정됨
- 이에, 비용 측면보다 참가 학생들 개개인의 니즈에 대한 만족 여부가 방문국가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일본 청소년의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 증진 및 한국에 대한 친밀성 부여를 통해 방한 여행 의욕 제고 및 향후 실제 방한으로의 유도가 필요

○ 코로나19로 인해 단절된 학교 관계자와의 네트워크 구축 필요

- 해외 교육여행은 개별 학교에서 최종 결정권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 관계자와의 네트워크 구축 및 지속적 관리를 통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방한유치를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

○ 학습 효과 극대화를 위한 수학여행 프로그램 구성 필요

- 일본의 교육여행은 문부과학성이 정한 학습지도요령을 준수하여, 각 학교가 정한 교육목표에 따라 학교측에서 수학여행의 목적을 결정함
- 수학여행의 기본 목적은 평소와 다른 생활환경에서 견문을 넓히고, 자연·문화 등에 친숙해지며, 집단생활과 공중도덕 함양 등 바람직한 체험을 쌓는 것임
- 이에 해외 교육여행을 통해 학생들이 외국인과의 교류를 통한 글로벌 인재로서의 역량 함양 및 SDGs와 같은 초국가적 사회 문제에 대한 대응자세를 갖출 수 있는 교육적인 프로그램 구성이 필요

○ 2년전에 수학여행지가 결정되므로 장기적 관점에서의 접근 필요

- 실제 방문 시점의 2년 전에 방문국가가 결정되므로 장기적 관점에서

마케팅 및 지원을 할 필요가 있으며 한번 결정된 방면은 몇 년 간 꾸준히 지속적으로 방문할 가능성이 높음

- 학교뿐만 아니라 여행사 담당자의 제안에 따라서도 방면이 결정되므로 여행사 수학여행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팸투어 및 방한수학여행 정보 제공이 중요함

참고자료 : 1. (2023.12.1.) 교육여행연보(데이터북2023)
2. 고등학교학습지도요령
3. 소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등의 소풍, 수학여행(통달)
4. 일본 문부과학성 공식 웹사이트
5. (2023.11.16.) 신문기사(수학여행의 변화, 시기 분산 경향, 해외 방면 극소수, 오키나와도쿄 인기 회복, 22년 60% 이상이 계획대로 실시). 끝.